

미야베 미유키(宮部みゆき) 『화차(火車)』 론

- ‘불공평한 운명’이 초래한 ‘고독’의 치유 과정 -

강 지 연*

(e-mail : midori10004@naver.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추적’의 시간에서 ‘회복’의 시간으로 |
| 2. ‘도망자’와 ‘뿌리 없는 자’의 고독 | 5. 나가며 |
| 3. ‘불공평한 운명’으로의 투사(投射) | |

키워드 : 孤独(loneliness), 不公平な運命(unfair destiny), 投射(projection), 疎通(intercommunication), 治癒(healing)

1. 들어가며

일본 사회파 추리소설의 대모라 일컬어지는 작가 미야베 미유키(宮部みゆき 1960~, 이하 ‘미야베’)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들로 호평을 받으며 1987년 데뷔 이래 지금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편 소설 『화차(火車)』(『小説推理』1992.2~6)는 2012년 한국에서 영화화¹⁾되어 평단과 대중에게 호평을 받은 그녀의 대표작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신조 교코(新城喬子, 이하 ‘교코’)는 버블 경제 하에서 무리한 대출로 마이홈의 꿈을 이루려던 아버지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중채무자가 되어 도망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신분 세탁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세키네 쇼코(関根彰子, 이하 ‘쇼코’)라는 여성의 신분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른다. 새로운 신분으로 결혼까지 하려던 교코는 과거 쇼코가 개인파산을 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급히 자취를 감춘다. 하루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근현대문학

1) 『화차(Helpless)』(2012. 3) 변영주 감독

아침에 약혼녀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교코의 약혼자 구리사카 가즈야(栗坂和也, 이하 ‘가즈야’)는 휴직 중인 형사 혼마 슌스케(本間俊介, 이하 ‘혼마’)에게 교코를 찾아 달라 부탁한다. 이에 혼마가 교코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다.

작품의 구성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건의 중심인물인 교코의 모습이 실체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품 속에서 교코를 형상화 하는 작업을 맡은 것은 그녀를 추적하는 형사 혼마이다. 작품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3인칭 소설이지만 마치 1인칭 소설과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혼마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간다. 우리가 작품을 읽으며 만날 수 있는 교코는 혼마가 추적 과정에서 수많은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들을 모아 완성한 인물이다. 교코 본인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등장하지만,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 미야베는 처음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작가 본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즐거운 시도였다고 인터뷰²⁾에서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은 현존하는 작가의 미스터리 분야라는 특성상 작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작가 자신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³⁾했듯이, 문학계에서 미스터리라는 장르가 ‘오락용 문학’으로 치부되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작된 화제작인 관계로 영화 관련 평론⁴⁾이나 서평⁵⁾

2) “最後まで行って犯人が出てきて終っちゃう、この仕掛けはタイトルとほとんど同時に思いついたんです。普通に読んで下さっている読者なら「ページはもうこれしか残っていないのに、犯人はいつ出てくるんだろう？」そういうふうにはハラハラしてもらえ、それって楽しいな、と。(中略)「なんだ、出てきて終りか」みたいな驚きも、狙ったことは狙ったんです。”(朝日新聞社文芸編集部編(2002)『まるごと宮部みゆき』, 朝日新聞社, p.144.)

3) “지금은 많이 열여졌지만 미스터리가 쇼와 시대,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좋게 말하면 서브컬처, 나쁘게 말하면 통속문학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문학작품으로서 2류라고 할까 소모품으로 보이던 시기가 길었어요. 제가 데뷔한 지 28년 되었는데요. 제 세대에도 처음 10년간은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었으니까, 저보다 더 윗세대의 미스터리 작가들한테는 더 힘들고 분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작품을 써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노골적으로 오락용 문학이라고 취급받았다든가. 그러지 않은 작가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정말 적죠.”

(<http://ch.yes24.com/Article/View/28626>) 「[특별 기고] 미야베 미유키 “내가 SNS를 하지 않는 이유”」 채널에스(검색일 : 2018.05.29).

4) 강준상(2012) 「<화차> 왜 그녀는 괴물이 될 수 밖에 없는가?」 『월간 한국노총』 Vol.48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46, “한국 범죄영화의 계보에 ‘사회성’이라는 하나의 획을 긋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영화”

이윤중(2015) 「젠더화된 속물성과 동물성 - <화차>와 <건축학개론>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Vol. 63, 東亜大学校附設 石堂伝統文化研究院, p.113, “중류계급 남성 동물과 하층 여성 속물의 이

등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주요 선행연구로 다음과 같은 논을 들 수 있다. 다카하시 도시오(高橋敏夫)는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신조 교코에 대하여 어두운 친화감을 과도할 정도로 느끼고 있다. 세키네 쇼코와 신조 교코가 ‘동류(同類)’인 것과 같이 등장인물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또한 그 두 사람과 ‘동류’인 것”⁶⁾이라 논하고 있다. 다니가와 마사미(谷川充美)는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 『이유(理由)』와의 비교를 통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무리한 방법으로 집을 장만하는 아버지들에 대해 분석하면서, “주목할 점은 그들은 ‘아버지’라는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이며, 이는 ‘집’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⁷⁾이라 논한다. 또한 김계자는 “미야베 미유키는 동시대적인 문제를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고 범죄를 만들어내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⁸⁾이라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작품 분석의 중심에는 주로 교코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 그녀를 범죄로 내몬 아버지의 무리한 대출, 신용과산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물론 작품의 주요 인물인 교코의 존재나 이러한 사회 문제들도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본 작품에는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사건을 뒤쫓는 가장 핵심 인물인 혼마를 비롯하여 교코 추적의

분법적 구도 속에서 이 두 그룹이 만났을 때 발생하게 되는 연쇄적인 균열과 파산의 과정을 화차의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

5) 佳多山大地(2006) 「80年代生まれ(ジ・エイティーズボーン)とミステリーを読む(10)後期レポート課題—宮部みゆき『火車(かしゃ)』」「本の窓」29(5), 小学館, p.73,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수업의 과제로 이 작품을 고른 이유로 “머지않아 학생들이 나갈 ‘신용사회’에 대한 일정한 교육적 효과를 예상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전승주(2013) 「『화차』 살아있는 유령들의 이야기」 『외국문학 구공육 2013』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p.14, “신용과산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라 엄연히 사회적 책임의 성격이라는 메시지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p.19, “이 작품은 금융자본이 구성해 놓은 신용사회의 사회적 뒷에 걸린 살아있는 유령들의 이야기”

한정선(2014) 「미야베 미유키, 우리 이웃의 ‘일상’을 추적하다」 『문학동네』 Vol.21 No.1, 문학동네, p.333, 일본 사회파 미스터리 대부라 일컬어지는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와 미야베를 비교하며, “마쓰모토 세이초가 개인의 문제를 묵직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미야베 미유키는 오히려 사회 문제에서 출발하여 무명의 개인을 들여다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분석한다.

6) 高橋敏夫(1993) 「『火車』 追従—松本清張と宮部みゆき—」 『すばる』 15 (11) 集英社, p.297

7) 谷川充美(2006) 「家を買う父—宮部みゆき『火車』、『理由』における父親像から—」 『安田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合册12, p.215

8) 김계자(2016) 「흔들리는 열도, 그래도 문학」 『일본비평』 Vol.- No.1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188

과정에서 혼마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의 목소리로 교코라는 미지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다양한 형태의 ‘고독’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품을 이끌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혼마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고독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고독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아가 이를 통해 작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미스터리 소설이라는 장르적 한계로 인해 문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미야베의 작품을, 현대 사회의 특징적 현상이자 동시에 인간의 근원적 감정 중의 하나인 ‘고독’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도망자’와 ‘뿌리 없는 자’의 고독

교코는 작품의 주인공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혼마의 수사 과정에서 오로지 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되고 인격을 부여받게 되는 인물이다.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는 그녀의 처절한 삶의 궤적에 반발이라도 하듯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비로소 등장하는 그녀의 모습은 ‘고뇌의 빛도 고독의 그림자도 없이’(354.)⁹⁾ 눈부시게 화사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그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고통과 두려움에 가득 찬 도망자로서의 인생이 있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학생 시절부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며 살아가기에 급급했다. 결국 사채업자에게 붙잡힌 교코는 이후 ‘날 것을 먹을 수 없게 되었’(308.)다는 표현으로 대변될 정도로 철저히 심신을 유린당하게 된다.

아름다운 외모와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특유의 분위기로 인해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어 하던 남자들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끝까지 그녀를 지켜낸

9) 본문 인용은 宮部みゆき(1992) 『화차(火車)』 双葉社에 의한다. 번역은 논자가 하였고 인용문 뒤에 인용 페이지를 기입하였다.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전 남편 구라타 고지(倉田康司, 이하 구라타)는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아버지의 죽음을 간절히 바라는 교코의 모습에 혐오의 눈빛을 보이는 것으로 교코를 더 큰 고독 속으로 밀어 넣었다. 혼마에게 교코의 행방을 좇아달라고 의뢰한 가즈야는 교코가 남의 신분을 빼앗아 거짓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련 없이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교코에게 직접 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의 성향은 그녀의 고독감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알게 된 혼마는 교코가 느꼈을 고독을 이해하게 된다.

혼마는 생각한다. 신조 교코는 고독했기 때문에, 외톨이였기 때문에 타인의 신분을 빼앗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쫓기며 도망치고 있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려는 남자가 옆에 있었다면 그녀는 「신조 교코」라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pp.233-234.)

교코의 인생을 고독으로 내 몬 것은 ‘다중채무’라는 외부적 요인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무리한 대출로 인한 것으로 그녀의 탓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러한 그녀의 운명을 끝까지 함께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교코는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타인의 존재를 말살하고 그 이름을 빼앗아 살아가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코의 흔적을 좇으며 사건을 재구성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혼마 또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교통사고로 아내 혼마 지즈코(本間千鶴子, 이하 지즈코)를 잃고, 가정부로 일하는 이사카 쓰네오(井坂恒男, 이하 이사카)의 도움을 받으며 양자인 혼마 사토루(本間智, 이하 사토루)와 함께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혼마는 그 의식의 깊은 곳에 뿌리 깊은 고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혼마의 아버지는 동북지방의 시골 출신으로 종전 직후 식량과 일을 찾기 위해 스무 살에 도쿄로 와 경관이 되었다. 같은 지역 출신인 혼마의 어머니와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경관으로서의 일생을 살아갔던 인물이다. 혼마의 아내 지즈코는 니가타(新潟)의 적설지역 출신으로 혼마의 부모님과 비슷한 지역적 환경에서 자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과 달리 도쿄에서 나고 자란 혼마는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문득 자기 혼자만 붕 떠 있는 기분’(p.143.)을 느끼곤 한다.

이 중에서 ‘고향’의 기억이 없는 - 뿌리가 없는 것은 나뿐이구나, 하고. 지즈코는 「당신은 도쿄 출신이잖아.」 하고 말하지만 혼마는 지금껏 한 번도 자신을 도쿄 사람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다. 자신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지리상의 도쿄와 ‘도쿄사람’, ‘도쿄출신’이라는 말에 따라오는 ‘도쿄’와의 사이에는 그다지 명백하게 정의내릴 필요도 없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중략) 그리고 그 때의 <도쿄>는 「고향으로서의 도쿄」 「인간을 낳고 기를 수 있는 도쿄」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쿄는 인간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중략) 그래서 뿌리 없는 자(根無草)가 늘어난다. 혼마는 나도 그중의 하나다, 하고 생각한다. (pp.143-144.)

아내를 잃고 홀로 양자를 키우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기 이전부터 혼마의 내면에는 ‘고향’ 또는 ‘뿌리’의 부재로 인한 근원적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 호황기를 누리면서 그 중심공간이 된 대도시 도쿄는 인간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나고 자라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혼마는, 그의 부모님이나 아내와 달리 자신이 ‘뿌리 없는 자’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일 때문에 대도시를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말끝에, 억양에, 단어를 고르는 중에, 그 인물의 ‘고향’이 확실히 떠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을 때, 좀 쓸쓸한 기분이 든다. 여럿이 모여 놀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 친구들은 하나 둘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혼자 남겨져 있었던 - 그런 아이와 같은 기분이 든다. (p.144.)

진정한 고향을 갖지 못한 ‘뿌리 없는 자’로서의 근원적 고독감, 도쿄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을 불안정한 정서. 혼마는 그러한 고독의 정서를 마치 ‘놀이터에서 놀다가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와 같은 기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위에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은 혼마는 외면적으로도 고독한 인생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3. ‘불공평한 운명’으로의 투사(投射)

사건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혼마의 자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사건의 피해자인 쇼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분석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코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과 감정 이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형사로서의 혼마가 아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고독한 인물로서의 혼마가 쇼코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동질감과 공감대를 교코에게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질감과 공감대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혼마와 교코를 비롯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다치거나 피해를 입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채무로 고통받던 교코는 남의 신분을 빼앗아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한다. 혼마의 아내인 지즈코는 본인은 안전운전을 했지만 트럭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지즈코를 죽음으로 몰고 간 트럭 운전자 또한 회사 측에서 요구한 무리한 운행 스케줄로 인해 이틀간 한 숨도 자지 못하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위로 아내를 잃은 혼마는 트럭 운전사를 온전히 원망하지도 못하고, 죽은 아내에 관한 단편적인 추억을 떠올리며 아들 사토루와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렇듯 그 원인을 파고들어도 특별히 책임을 질 사람을 규정하기 어려운 ‘사회 제도상의 부조리’가 그 원인이 되고 있기에 그들은 이 ‘불공평한 운명’(p.312.)을 받아들인 채, 제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선택하여 살아간다. 혼마로부터 지즈코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쇼코의 개인파산 신청을 담당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경우 잘못된 것은 누구일까요?」라고 변호사는 말했다. 「물론 졸음운전을 한 트럭 기사에게는 과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를 그런 근무상태가 되도록 몰아간 고용주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과 일반 승용차가 함께 주행하는 도로에 충격을 흡수하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행정측도 잘못이 있지요. 도로 폭이 좁은 것도 잘못. 길을 넓히고 싶어도 넓힐 수 없는 것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이 나쁘기 때문이고, 땅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중략)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고에는 무수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p.118.)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서 쇼코 또한 신용카드와 사채라는 현대 사회의 시스템적 문제의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혼마가 교코와는 달리 쇼코에게서는 좀처럼 동질감과 공감대를 느끼지 못한 까닭이 있다.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는 ‘불공평한 운명’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다. 쇼코의 경우, 교코나 혼마의 경우와는 달리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본인 스스로 선택의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운명’에 의한 희생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작품 속에서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다른 선택을 한 혼다 이쿠미(本多郁美, 이하 이쿠미)라는 인물이 쇼코와는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쇼코의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혼마가 만나게 되는 조력자 혼다 다모쓰(本多保, 이하 다모쓰)는 쇼코의 고향 친구이다. 그리고 이쿠미는 쇼코의 어머니인 세키네 요시코(関根淑子, 이하 요시코)의 사고를 처음으로 목격하고 신고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모쓰와 결혼을 한다. 그녀는 도쿄의 단기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일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가정을 꾸리는 선택을 한다. 작품에서 이쿠미는 비슷한 상황의 쇼코와는 반대되는 선택을 한, 현명하고 현실감 있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쿠미에 대해 혼마 또한 호감을 느끼며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혼마의 교코에 대한 ‘호기심’(p.242.)은 그저 가벼운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불공평한 운명’이라고 하는 비슷한 운명적 고독을 지닌 대상에 대한 숙명적 호기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불공평한 운명’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혼마는 이러한 불공평한 운명에 대해 굳이 의식하려 하지 않은 채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무 수행 중 총에 맞는 사고를 당해 휴직을 함으로서 평범한 일상의 흐름이 잠시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다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온 가즈야를 통해 교코라는 미지의 존재와 조우하게 된다. 그녀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교코’라는 인물을 혼마 자신의 틀 안에서 형상화시키고 인격을 부여해 간다. 그 결과 교코가 처절하리만치 실감하며 살아왔을 ‘불공평한 운명’으로 인한 고독의 실체와 이윽고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종일관 변함없는 것은, 그녀가 도망자였다는 점이다.

사채업자의 손에 들어가 지옥과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도망자였다. 불공평한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었다. 항상 도망치려고 했었다. (p.312.)

교코는 그녀에게 부여된 ‘불공평한 운명’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던 도망자였다. 그에 반해 혼마는 자신에게 부여된 ‘불공평한 운명’으로 인한 고독 속에서 부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뿌리가 없는 자로서의 고독,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로 부당하게 아내를 잃은 자로서의 고독, 입양한 아들에 대해서조차 이사카와 더욱 부자지간 같아 보인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던 중 교코라는 인물의 흔적을 쫓게 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무의식의 콤플렉스로서의 ‘불공평한 운명으로부터의 도피 욕구’를 교코에게 투사¹⁰⁾하게 되는 것이다.

혼마는 추적이 막바지에 이르러 교코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실체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점차 그녀와의 소통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휴직 중이기는 하나 형사로서 응당 취해야 할 행동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아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고독을 공유하는 자로서 이해와 소통을 원하는 것이다.

내 쪽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따위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를 만난다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네가 혼자서 깊어져온 이야기를. (p.355.)

작품은 지금까지 혼마의 재구성에 의해 형상화되었던 ‘교코’라는 존재가 실

10)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하여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 대상에게 집착하여 헤어나지 못하게 될 때, 더구나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무엇인가 자기의 무의식적인 것을 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내가 공연히, 이유 없이 누가 미워질 때, 또는 공연히 누구에게 호감이 갈 때 무의식의 투사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투사된 대상에의 집착은 투사되지 않은 대상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할 수 없다. 물론 사람들은 그 이유를 생각해 낸다. 그러나 그것으로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도 않을뿐더러 그 이유는 대개 비합리적이다. 무의식의 모든 것이 투사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강력한 감정을 일으키는 콤플렉스가 무의식에서 배설되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를 즈음에 먼저 투사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투사현상은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무의식의 내용이 투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투사가 되면 최소한 우리는 마음의 일부를 외부의 객체에서나마 체험하게 된다.(이부영(2014) 『분석심리학 이야기』, 집문당, pp.34-35)

체가 되어 혼마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서 끝을 맺는다. ‘이제 도망치는 것은 그만 두자.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소통에의 권유, 매마르고 힘겨운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힘은 그래도 ‘사람’과의 이해와 소통에 있다는 메시지를 혼마의 독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4. ‘추적’의 시간에서 ‘회복’의 시간으로

혼마가 가즈야를 통해 교코와 운명적인 조우를 하게 된 건 아내 지즈코 사망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시간동안 혼마는 이사카의 도움을 받으며 아들 사토루를 홀로 키워냈다.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마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독감이라는 감정을 풀어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영위해 왔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가즈야에게 의뢰를 받을 당시 혼마는 직무 수행 중 범인이 쏜 총에 맞아 다리를 다쳐 휴직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처럼의 휴식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혼마는 익숙하지 않은 그 시간을 서투르게 보내며 직장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전전긍긍한다.

휴직 따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처음으로 뼈저리게 후회했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이렇게 바보같이 고집을 부리며 차내에서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은.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역시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걱정이 없으니까.(중략)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자기주장을 한다. (pp.3-4.)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자기주장을 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혼마는 스스로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단절시키고 고독 속으로 밀어 넣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혼마는 아내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며 아내의 부재와 온전히 마주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치열한 현실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자기 안의 깊은 고독을 외면해 왔다. 그러던 중 가즈야의 의뢰로 교코를 찾는 과정에서 아내를 잃은 상실감, 아내의 부재로 인한 공허 등 그간 자신이 외면해 왔던 고독의 실체와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지즈코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일을 하던 여자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저 가솔린 병과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환풍기의 날개. 저런 행동을 하던 여자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과거에 쫓기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p.72)

혼마는 교코의 흔적을 쫓으며 문득문득 아내 지즈코의 생전의 습관이나 흔적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교코라는 여성과 지즈코를 비교하기도 하고, 교코가 저지른 범행의 단서를 찾아내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지즈코의 부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혼마는 앞서 언급했듯이 차츰 교코라는 인물이 품고 있는 고독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혼마에게 있어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제목인 ‘화차’는 에피그래프에서 밝히고 있듯이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망자를 태우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불타는 차’이다. 불타고 있는 화차에 탄 이는 고독하다. 그 누구도 함께 탈 수 없고 다가올 수도 없으며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혼마는 교코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교코 뿐만이 아닌 이 고독의 화차에 탄 다른 이들과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만남들은 혼마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고독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금 대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예로 실종된 쇼코의 어머니인 요시코의 죽음을 조사하는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요시코는 남편이 없고 딸 쇼코마저 도쿄에 있어 쓸쓸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근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다가와(たがわ)」라는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가는 일상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건물 바깥쪽으로 나 있는 가파른 비상계단을 내려오다 실족해 죽음을 맞이한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사건의 담당 형사 사카이(境)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그 정도로 고독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카이는 그렇게 말하고 이쪽을 등진 채 뒷걸음질 쳐 3층 복도로 올라갔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을 때 까지 요시코씨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여기를 내려갔었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서도 이 계단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다가

와』의 손님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님들 중에서는 취해서 가게를 나서는 요시코씨를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버려두면 요시코씨는 또 계단으로 내려갈 테니까 내가 좀 가서 엘리베이터에 태워 주고 올게, 하고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위험하니까 엘리베이터 타』라고는 말해도, 입으로는,」(중략)
「남의 탓 못해요. 나도 그런 말로만 친절했던 단골손님 중 한 사람이니까.」
(p.197)

사카이 형사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도 요시코의 죽음에 일종의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볼 수 있다. 요시코의 죽음이 외형적으로는 사고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독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가 낳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카하시의 ‘관련 법률도 없고 범인도 불확실하며 나아가 범행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스스로의 거처를 잃은 고독한 한 여자의 죽음과 그녀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자신들의 장소를 떠나지 않았던 남성들의 깊은 침묵이 있다. 불확실한 범인과 범행은 이러한 사실 앞에서 특정한 범인과 범행에 대한 모색을 떠나 이 시대의 「범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¹¹⁾ 고 말한다. 악의에 의한 적극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어찌면 악의 보다 더욱 무서운 ‘무관심과 침묵’이 낳은 ‘이 시대의 범죄’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발걸음을 돌려 「다가와」의 문 쪽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면 계단 옆에 누군가 있을 것 같은 - 술에 취해 벽에 몸을 기대고 있는, 59세의 고독한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p.197)

인용 부분을 통해 혼마는 죽은 요시코의 고독에 안타까운 감정 이입의 모습을 보인다. 요시코의 죽음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 ‘이 시대의 범죄’로서 요시코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 혼마 자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독의 화차에 타고 있는 것은 비단 교코만이 아니다. 쇼코의 어머니인 요시코, 그리고 교코를 쫓는 과정에서 혼마가 만나는 많은 이들이 고독의 화차에

11) 앞의 논문, 高橋敏夫(1993), p.292

탄 채, 고독한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들은 혼마로 하여금 그간 자신이 외면해 왔던 내 안의 고독뿐만이 아니라 타자의 고독까지도 실감하고, 마주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혼마에게 있어 교코를 추적하는 시간은 단순히 추적의 과정이 아닌 것이다. 혼마가 자기 안의 고독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아가 타자의 고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필요성에 눈 뜨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5. 나가며

이상, 소설 『화차(火車)』를 통해 작품 속에 그려진 ‘불공평한 운명’이 초래한 등장인물들의 ‘고독’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인공 혼마가 교코를 쫓는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자기 고독의 정확한 인식, 나아가 타자의 고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불공평한 운명’에 의해 고독한 삶 속에서 부유하듯 살아가던 형사 혼마는 ‘불공평한 운명’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던 교코의 흔적을 쫓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혼마는 그녀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아닌, 그녀의 고독한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보여 준다. 나아가 혼마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근원적 고독을 교코의 고독했던 인생에 투사함으로써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고, 그녀와의 ‘소통’을 간절히 희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혼마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의 고독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추적 과정은 혼마에게 있어 오랜 시간 외면해 왔던 자기 안의 고독과 마주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공감’과 ‘이해’ 그리고 ‘소통’을 통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 내던져진 현대인의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과 교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근원적 공포인 ‘고독’. 한국적 정서에 맞는 훌륭한 각색이 있었다고는 하나, 영화 『화차(火車)』가 위화감 없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원작 소설 『화차(火

車』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상(2012) 「<화차> 왜 그녀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월간 한국노총』 Vol.48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46
- 김계자(2016) 「흔들리는 열도, 그래도 문학」 『일본비평』 Vol.-No.1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170-191
- 이부영(2014) 『분석심리학 이야기』 집문당
- 이윤종(2015) 「젠더화된 속물성과 동물성 - <화차>와 <건축학개론>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Vol.63, 東亜大学校附設 石堂伝統文化研究院, pp.95-126
- 전승주(2013) 「『화차』 살아있는 유령들의 이야기」 『외국문학 구공육 2013』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pp.10-20
- 한정선(2014) 「미야베 미유키, 우리 이웃의 ‘일상’을 추적하다」 『문학동네』 Vol.21 No.1, 문학동네, pp.330-339
- 朝日新聞社文芸編集部編(2002) 『まるごと宮部みゆき』 朝日新聞社
- 佳多山大地(2006) 「80年代生まれ(ジ・エイティーズボーン)とミステリーを読む(10)後期レポート課題--宮部みゆき『火車(かしゃ)』」 『本の窓』 29(5) 小学館, p.70-73
- 高橋敏夫(1993) 「『火車』 追従一松本清張と宮部みゆき」 『すばる』 15(11) 集英社, pp.280-299.
- 谷川充美(2006) 「家を買う父-宮部みゆき『火車』, 『理由』における父親像から-」 『安田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合册12, pp.201-219
- 宮部みゆき(1992) 『화차(火車)』 双葉社
- 채널예스:<http://ch.yes24.com/Article/View/28626>(검색일 : 2018.05.29).

논문 투고 일자 : 2018. 05. 31.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要旨>

宮部みゆき『火車』論
 - 「不公平な運命」かもたらした「孤独」の治癒過程-

姜志娟

宮部みゆきの長編『火車』は日本国内だけでなく韓国でも話題になった、作家の代表作である。本稿では作品に現れる様々な「孤独」の様相を考察した。「不公平な運命」による孤独な人生を生きる刑事本間俊介は、同じく「不公平な運命」から絶えず逃げようとする新城喬子の痕跡を追う。その過程の中で本間は喬子の孤独な人生に対する「共感」や「理解」の姿勢を取る。さらに本間は自分の無意識の中に潜んでいた根元的な孤独を、喬子の孤独な人生に「投射」する。これによって彼女と同質感を感じ、彼女との「疎通」を求めることになる。また喬子の痕跡を追う過程で出会う様々な人物との出会いによって、本間の理解はさらに広がる。このようなプロセスは本間にとって自分の中の孤独と向き合っ、他者の孤独に対する理解と疎通の必要性に気づき、治癒へと向かうきっかけになるのだ。したがって、この作品は「共感」や「理解」、そして「疎通」を通して現代資本主義競争社会の中の人々の孤独を治癒できるという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と言える。

Miyuki Miyabe "Kasha" Theory
 -Healing process of 'solitude' caused by 'unfair fate' -

Kang, Ji-Yun

Miyuki Miyabe's Feature novel "Kasha" is a masterpiece of the writer who became a topic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Korea. In this paper, we examined various aspects of "loneliness" appearing in the work. Shunsuke Honma who lives a solitary life by "unfair fate" pursues the trace of Shinzyo Kyoko trying to escape from "unfair fate" as well. In the process Honma takes the posture of "empathy" and "understanding" for Kyoko's lonely life. In addition, Honma "projects" the fundamental solitude lurking in his unconscious into the lonely life of Kyoko. This will feel the same texture as her and you will seek "communication" with her. Also, by encountering various people who meet in the process of following the traces of Kyoko, Honma's understanding spreads further. This kind of process confronts Honma's loneliness in himself, noticing the need for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of others' loneliness, which is a catalyst for Honma.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is work suggests the possibility of being able to cure the loneliness of people in contemporary capitalist competition society through "sympathy",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